

비박계 탈당·반기문 선택이 성패 가른다

대선판도 바꿀 '제3지대론' 다시 꿈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는 흐름 속에서 '제3지대'를 둘러싼 정치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헌법재판소의 심리 결과를 속단할 수 없지만 4~6월 조기 대선이 유력하게 점쳐지면서 기존의 여야 대결 대선판도를 바꿔 제3지대에서 승부수를 띄우려는 정치권의 기류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최근 대선 출마 의지를 나타내는데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개헌을 고리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 친박(친 박근혜)의 버티기로 새누리당의 분당 가능성도 높아 제3지대의 동력이 커지고 있다.

◇'비박'계의 탈당=정계개편과 제3지대 확장 여부의 최대 변수 중 하나로 주목되는 새누리당 내부의 소용돌이는 계속되고 있다.

김무성 신당 창당 고민중 반, 제3세력과 손 잡을 가능성 개헌 연대 물밑 논의도 활발 정의화·김종인 회동 눈길

우선 친박(친박근혜)계인 정우택 원내대표의 당선으로 비박(비박근혜)계의 탈당 가능성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지난 16일 "탈당과 신당 창당 여부를 일주일 정도 신중하게 고민한 후 최종 결심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 주목받고 있다. 결국 비대위 원장 선출 결과가 새누리당 비박계의 진로를 결정지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김 전 대표가 1주일 정도

의 시간을 뒀지만 정치적 출구가 결국 탈당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얼마나 많은 의원이 동참할 지와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가담 여부가 정계개편의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반기문의 선택=여기에 내년 1월 중순 귀국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에 도전한다면 정치적 거취를 어디에 둘 것인지도 관전 포인트다.

반 총장은 친박이 주도하는 '정치적 폐쇄'가 된 새누리당과 함께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인 만큼, 제3의 세력과 손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특히, 비박계가 제3지대로 나올 경우 중도 보수의 가치를 내세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념적 스펙트럼도 중도 경향성이 큰 제3지대와 공감이 맞을 수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연정을 토대로 안철수-손학규-반기문 등 3자 경선이 제3지대에서 이뤄진다면 상당한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헌연대 움직임=개헌을 고리로 한 제3지대의 물밑 논의도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김중권 전 대표가 지난 16일 회동, 눈길을 끌었다. 당초 두 사람과 함께 손학규 전 대표도 참여하는 '3자 회동' 방식으로 추진됐다가 손 전 대표가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들은 조만간 다시 모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대표는 정 전 의장과 회동 전 손 전 대표와도 만찬을 갖고 즉각적인 개헌 추진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민주당 내부에도 개헌파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개헌론은 대선 구도를 흔들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정운찬 전 총리도 동반성장과 기본소득제 등의 정책 방향이 야권 스펙트럼이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총리를 지냈다는 점에서 제3지대에서 여러 정치세력과 연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정현 '거위의 꿈' 불명예 퇴진 날개 꺾여 새누리 대표직 사퇴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지난 16일 당대표직에서 물러나며 '거위의 꿈'을 접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이 예고한 사퇴 시점인 21일보다 5일 먼저 자진 사퇴했다. 지난 8월9일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지 4개월여 만이다.

그는 앞서 지난 14일 의원총회에서 "단 한 마리의 거위가 창공을 날아 많은 거위들이 벽을 뚫고 창공을 날아오르길 기대했는데 저는 이제 거위의 꿈을 접었다"며 사퇴의 변을 미리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 8·9 전당대회에서 보수 정당 최초의 호남 출신 당 대표로 화려하게 등극했으나 지난 130일은 그야말로 파란만장의 연속이었다.

이 전 대표는 당선 초기 예고없이 전국 곳곳을 누비는 신출귀몰한 일정을 소화하는 등 파격을 선보이며 당의 활력소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사드 배치 논란, 경주 지진,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태풍 등 외부 변수에 의해 리더십이 자주 실패대에 오르며 흔들렸다.

이 전 대표를 궁지에 몰 것들은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 파문이었다.

그는 당 안팎으로부터 쏟아지는 사퇴 요구를 받고 '조기 전대론' 카드로 맞섰으나 사퇴론은 확산하기만 했다. 또 거세지는 촛불민심으로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방패막이' 역할을 자처했지만 탄핵 가결을 막아내지 못했다.



"비박계 탈당, 함께 신당 만들자" 김용태 의원이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현직 새누리당 탈당의원 모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 '도로 친박당'... 비대위장은 유승민이 맡나

신임 원내대표 정우택 선출 비대위원장 선출 분당 분수령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과 원내대표 경선 이후 극단으로 치닫던 새누리당 내부 사태가 비주류 측 의원들의 탈당 유보로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그러나 비대위원장 선출과 위원 구성 결과에 따라 파국과 봉합의 갈림길에 설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지난 16일 정우택(사진) 신임 원내대표의 선출 직후 이정현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선언함에 따라 당은

비상대책위원회로의 체제 전환이 불가피해졌다. '정우택·이현재 조'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진행된 원내대표·정책위의장 경선에서 총 62표를 얻어 비박(비박근혜)계 '나경원·김세연 조'(55표)를 눌렀다.

친박(친박근혜)계는 원내대표 경선에서 밀렸던 정 의원을 당선시키는 데 성공함에 따라 비대위원장은 비주류에 양보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비박(비박근혜)계도 일단 비대위 구성까지는 지켜낸 뒤 향후 진로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당분간 집단 탈당 사태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비대위 구성에 대한 양측의 인식 차이가 워낙 커 이 같은 휴전 상태는 길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주류 측에서 가장 선호하는 비대위원장은 유승민 의원이나 친박에서는 거부 움직임을 확실하다. 특히 유 의원은 18일 "'전권을 행사하는 비대위원장이 아니라면 어떠한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혀 친박계를 긴장케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 지지율 40%...최고치 경신

광주시당 답양서 당원 200여명 참석 당직자 연수회

더불어민주당이 20여년 만에 정당지 지율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40%였다.

이는 당명 교체 이후 최고치로, 전신인 민주통합당 시절이었던 2012년 대선 직전의 지지율 37%도 넘어선 것이다. 민주당 계열 정당지지도가 40%를 넘어선 것은 김대중(DJ) 전 대통령 취임 첫 해인 1998년 이후 처음이라고 갤럽은 18일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전주보다 2%포인트 오른 15%를 기록하며 2위에 올랐고, 국민의당은 1%포인트 하락한 12%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이형석)은 지난 16~17일 답양리조트에서 핵심당원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주최로 열렸다.

이번 연수에는 시장 상설위원회와 8개 지역위원회 등 200여 명의 당원이 참석했으며, 당일 간 결속을 다지고 당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연수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사태 과정에서 나타난 성숙한 민주 시민의식을 탐구하기 위한 '춥쌀과 정치' 강의와, 더민주 광주시당의 발전방향을 위한 집단토의와 효율적인 토론기법을 배우는 원탁토의 등으로 진행됐다.

이형석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당원 간 연대를 더욱 공고하게 다져 2017년 정권교체의 초석을 만들자"라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국민의당 본격 당권레이스

당대표 후보 박지원·정동영 유력

내달 15일 전당대회 호남표심이 핵심 변수

국민의당은 지난 6월 '홍보비 리베이트 파문'으로 안철수·전정배 공동대표가 사퇴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대부 경선 방식은 전국의 당원이 1인 2표를 행사하고 이를 최대 20%까지 반영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와 합산, 당 대표 1명과 최고위원 4명을 득표순으로 통합 선출한다.

당 전대준비위원회는 전대 직전인 1월 7~12일 전국을 돌며 시·도당 개편대회 겸 당원대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력한 당권 후보로는 우선 박지원(74) 원내대표가 꼽히고 있다. 그는 국민의당 창당 이후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맡아 당을 이끌며 사실상 '일 톨' 역할을 해왔다.

박 원내대표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풍부한 정치적 경험과 정치력을 토대로 호남과 국민의당 중심의 정권 창출에서의 '역할론'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한명의 당권 경쟁후보는 정동영(63) 의원이다. 정 의원은 대권과 당권 도전에 모두 가능성을 열어 놓았지만, 최근 대표 출마 쪽으로 기울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주 중반께 최종 결심을 밝힐 예정이다.

지난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소속으로 대선 본선을 치른 것을 비롯해 열린우리당 의장과 통일부장관 등 화려한 경력을 갖춘 거물급 인사란 점에서 박 원내대표의 대항마로 꼽힌다.

당권의 향배를 가를 핵심 변수로는 호남 당원들의 표심이 꼽힌다. 전체 당원의 70%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특히, 1인 2표라는 점에서 호남의 상징성이 큰 박지원 원내대표가 상당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정동영 의원이 출전한다면 호남 표심의 분열로 인해 혼전 양상이 펼쳐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조배숙·황주홍·이동섭 의원과 문병호 전라기획위원장, 김영환 전 사무총장, 정호준 비상대책위원 등이 최고위원 후보군으로 꼽힌다.

한편, 전대를 앞두고 당의 최대 주주인 안철수 전 대표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안 전 대표는 이번 전대 국면에서는 한 발 짝 뒤로 물러나 자신과 선을 그치고 있지만, 당내 유력 대선주자인 안 전 대표와 각 후보 간의 관계가 당락을 좌우할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경매 추천물건	투자 추천 물건	수익형 추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 광산구 옥동 평동초교 동측위치 평동 제1차 일반산업단지 토지 1652.6㎡ 건물 2547.76㎡ 감정가 11억 ▶ 최저가 7억7천 ★ [건물] 목포시 석현동 가톨릭대학교 부근 병원건물 토지 12,096㎡ 건물 8,337㎡ 감정가 139억7천3백 ▶ 최저가 78억2천5백 ★ [건물] 순천시 풍덕동 중앙초교 인근 주상복합지대 10층 건물 토지 349.4㎡ 건물 2,281.94㎡ 감정가 24억3천 ▶ 최저가 17억 ★ [무인텔최적합]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도곡은천관광단지내 포장도로점 토지 3,234.2㎡ 건물 4,280.8㎡ 감정가 37억8천 ▶ 최저가 15억5천 ★ [건물] 장성군 북하면 악수리 백양사남서측 포장도로점 토지 926㎡ 건물 837.49㎡ 감정가 7억8천 ▶ 최저가 2억8천 ★ [건물] 장성군 삼서면 대곡리 요양병원 토지 11,546㎡ 건물 5,733.24㎡ 감정가 48억8천 ▶ 최저가 21억9천 ★ [공정] 장성군 동화면 용정리 장성 백이사거리인근 공장지대 토지 9,178㎡ 건물 5,842㎡ 감정가 36억5천5백 ▶ 최저가 20억4천7백 ★ [공정] 광산구 옥동 평동산업단지내 기아자동차출하사무소 서측 도로점 토지 2,911.9㎡ 건물 1,811.2㎡ 감정가 32억9천7백 ▶ 최저가 23억8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 나주시 노안면 장동리 계획관리지역 주택, 과수원 (물류창고, 공장적합) 토지 34,000㎡ 매매가 상담후 협의가 ★ [토지] 동구 지산동 무등산 유원지 카페거리 부근 토지 1,950㎡ 주위 식당, 카페업종 매매가 상담후 결정 ★ [토지] 북구 삼각동 31사단 정문 인근 전 1,326㎡ 1종일반주거지역 주위 식당업종 투자적합 ★ [토지] 제주시 서귀포시 강정마을인근 바다, 한라산조망, 펜션, 빌라 부지적합 토지 4,000㎡ 주택 28세대가상 상가 건물로 교환 원함 ★ [토지] 전남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대규모 펜션 카페 대지 15,668㎡ 건물 900㎡ 미래가치 우수 매매가 상담후 결정 ★ [토지] 북구 화암동 무등산공원내 답 1,700㎡ 주말농장 및 농지원부가능 매매 ★ [토지] 담양군 금성면 덕성리 824평 무인텔 허가 득(19객실) 매매가 8억3천 ★ [건물] 광주 서구 매월동 자동차매매단지 옆 토지 5,359㎡ 건물 595.4㎡ 2층 공장 매매 평당2백5십 ★ 광주근교 전원주택부지 다량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서구 금호동 아파트 밀집지역 사우나,헬스 6층 건물 대지 1,896㎡ 건물 1,320㎡ 1층 점포다수 고수익형 매매 58억 ★ [건물] 광산구 첨단 롯데마트부근 지하1~7층 요양병원 대지 1,350㎡ 건물 1,192㎡ 임대안고도 가능 매매 60억(협의가) ★ [건물] 광산구 공원에서 송정역 대로변 지상 6층 병원건물 대지 958㎡ 건물 2,570.58㎡ 매매 35억 ★ [건물] 광주 서구 쌍촌동 상무대로변 지하2층~지상10층 대지 777㎡ 건물 5,902㎡ 매매 55억 ★ [건물] 광주 서구 풍암동 상업지구 대지 510㎡ 건물3,245㎡ 지상9층 병원빌딩 용 30억 보증금 2억5천 월2천8백만원 매매 50억 ★ [건물] 광주 북구 용두동 양산사거리부근 대로변 메디컬센터 입점중 대지 929㎡ 건물 895㎡ 매매 63억 ★ [건물] 광주 서구 풍암동 동부센터빌부근 코너 대지 298.9㎡ 건물 175.9㎡ 4층건물(용6억포함), 보증금 7천 월4백6십 매매 13억5천 ★ [건물] 담양군 금성면 봉서리 현 양식장 5,522평 장어식당 운영 중(연매출 1억5천), 주택(포함) 매매가 17억
<p style="font-size: 1.2em; margin: 0;">공인중개사 장현준 010-3610-4039 배우면서 함께 일하실 공인중개사 구함 062-714-2258</p>		